



구미 불교사 롬비니합창단은 지난 2월 캄보디아 시엠립 외딴섬 사원에서 공연을 가졌다. 롬비니합창단은 세계 각국을 다니며 한국불교를 알리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신라불교의 씨앗이 뿌러지고 싹이 자라난 곳 구미와 김천은 그 어느 지역보다 불심이 깊다. 특히 해동최초의 가람 도리사가 있는 구미는 곳곳에 큰 사찰들이 특색있는 활동을 펼쳐 지역불교를 이끌고 복지 문화 등 지역사회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또, 청년불자를 비롯한 재가불자들의 활동 또한 왕성하다. 반면 김천은 직지사의 거대한 그늘 아래 70여개의 사암들이 소박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사람별도 보면 신라불법의 초전법륜지 도리사는 불교성지로서 상징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정월 초하루 해맞이 법회나 타악 뮤지컬 공연 등을 개최해 지역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금강사는 시내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으로 80년대 초 반야불교학생회와 구미불교청년회의 창립을 도우며 오늘날 구미불교의 틀을 형성했고, 천해사와 보천사는 다도반을 운영하면서 지역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초전법륜의 역사 전방위 포교로 승화

경북 구미·김천

교전태종 천태복지재단이 구미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금오종합사회복지관(관장 방등은)은 저소득층 아동들의 학습과 급식을 보조하는 지역아동센터와 학대아동그룹홈인 문수이집, 지난 1월 조계종단 최초로 승인 받은 학대아동예방센터를 연계해 운영하면서 보다 차별화된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교계 자원봉사자들을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과 연결시켜 지역발전은

다. 반야불교학생회는 지역 우수 학생들을 구미불교청년회를 거쳐 불법의호세력으로 성장시키는데 성공했다. 그 외 구미에는 거사법회, 시청공무원불자회, 경찰공무원불자회, 윤불련, 교사불자회 등 다양한 신행단체들도 활동하고 있다.

김천 추풍령 아래 첫 고을 김천은 소백산맥 줄기에 서 발원한 감천 직지천이 이루어 놓은 충



김천 개운사 녹아유치원은 지역어린이 포교의 산실과도 같은 곳이다. 녹아유치원 어린이들이 다도수업을 받고 있는 모습.

서기 418년 아도화상에 의해 세워져 한 국불교 1600년 역사와 세월을 함께 해온 직지사는 아름다운 경내가 못 사람 중 으뜸이다. 현 직지사 회주 녹원 스님이 1958년 주지로 부임하면서부터 30년에 걸친 중장불사로 6개 전각에 불교했던 직지사를 67개동의 불전(佛殿)과 당우(堂宇)를 갖춘 오늘날의 가람으로 발전시켰고, 국제회의와 대법회를 위한 본사 최대의 건물인 만덕전(萬德殿)을 건립했다.

이여오고 있다. 비록 김천시내에 있는 개운사나 천태종 금강사 등 몇 개 사찰을 제외한 개별 사찰들의 활동이 미약하지만 직지사와 함께하는 연합회 활동은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는 편이다.

김천사암주지연합회는 지난해 처음으로 연합 초파일 불공법회 대신 거리 제등행진에 나서 2천 여 명의 불자가 참여하는 대성황을 이뤘다. 또 몇 해 전부터 시행해 오던 매주 목, 금요일 무료급식과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은 지역불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꾸준히 잘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김천지역 불자들의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직지사내에 불교대학을 개설했다. 또 개운사가 운영하는 녹아유치원, 금강사가 운영하는 금강유치원 등 불교계 유치원이 지역주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으면서 발전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농촌지역 이다보니 직지사에 창립된 신행 단체 외에 활동하는 대표적인 신행단체는 없다. 직지사에는 거사법회, 관음회, 교사불자회, 합창단, 윤불련 등 19개 신행단체가 활동하고 있는데 그중 지역 불우이웃 돕기나 장애자 수송 외에 각종교계 행사 등에 적극 나서는 윤불련의 활동이 단연 돋보인다.

구미·김천=배지선 기자

구미 옛 고구려 승려 아도화상이 신라에 불교를 처음 전하기 위해 세운 해동(海東) 최초의 가람 도리사가 있는 곳 구미는 신라불교의 씨앗이 뿌러진 텃밭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하다. 또, 신라불법의 초전법륜지라는 명성에 걸맞게 구미사암주지연합회 회원사찰간의 단합이 잘 되고 각 사찰별 활동도 왕성하다. 종단과 종파를 초월한 30여개 사찰로 이뤄진 구미사암주지연합회는 85년 결성된 이후 매년 초파일 제등행진을 주최하면서 신심고취와 불법홍포에 앞장서 왔다. 또, 2001년에는 지역불자들의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불교대학을 설립했고, 매년 불우이웃돕기, 불우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후원도 빠뜨리지 않고 있다.

'산업도시' 청년불심 지역발전 토대 종합복지관 3곳...신행 기반 튼튼

그 외에 금오산 자락에 있는 남화사는 2001년 12월 외국인 노동자 심터를 운영해 왔으며, 진각종 보광심인당은 20년 넘게 보광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어린이포교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 구미불교는 지역복지나 사회참여도 타 종교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 구미시에 있는 3개 복지관 중 금오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대한불

위한 보다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의견 반영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 중이다. 구미는 첨단산업도시, 젊은 도시로 청년 불자들의 활동이 왕성했던 곳이다. 최근 직장 직능단체 청년 불자들이 흡수되면서 활동이 침체되었지만 79년 창립한 구미불교청년회는 81년 구미 첫 제등행진을 이끌 만큼 활동이 대단했다. 특히 81년에 창립한 구미반야불교학생회는 오늘날 구미불교의 주역들을 배출했

직지사 교육·문화·새싹포교 견인 사암주지련 무료급식 등 앞장 '귀감'

적평가를 기쁨으로 더할 일군 고장으로 활약한 직지사, 금오산 아래 길항사터, 수도산 깊은 골에 자리한 청암사와 수도암이 신라불교의 씨앗이 뿌러지고 싹이 자라난 내력 깊은 고장임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활약한 직지사는 조계종 25교구본사 중의 하나로 큰 그늘을 드리우며 김천불교를 아우르고 있다. 그 외 청암사는 비구니 강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수도암은 스님들의 수행도량으로 유명하다.

과거 10여 년 동안 동국대학교 이사장을 역임한 녹원 스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교육과 포교에 지대한 원력을 가지고 직지사를 중심으로 김천지역 불교발전을 이끌어왔다. 일찍이 어린이포교의 중요성을 직시하고 개운사 유치원 개원에 나선 것도 녹원 스님의 원력에 따른 것. 한편 김천에는 직지사 외에 종단과 종파를 초월한 80여개의 사암이 김천사암주지연합회를 형성해 30년을 넘게 그 활동을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구미불교 발전에 헌신

법등 스님 (구미 도리사 주지·조계종 중앙총회 의장)

81년 도리사 주지로 부임한 스님은 신라에 불교가 전파된 성지로서 가람의 면모를 갖춰놓았으며, 지역주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다. 또 일찍부터 지역복지 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금오종합사회복지관 관장으로 지역 사회복지에도 일익을 담당했다.



뿐만 아니라, 구미사암주지연합회가 설립한 구미불교대학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봉곡동에 새로운 보금자리인 화엄탑사를 준공하여 그 운영을 맡게 됐다. 스님은 지역 시민단체 활동에도 적극참여하고 있다. 구미경실련대표로 또, 전국 경실련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스님은 불교계를 지역사회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정부정책을 이끌어내는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지금 금오종합사회복지관은 올해 복지관 증축 공사를 통해 750평 규모의 전국최대규모 복지관으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다. 스님은 곧 남화사에 건축된 외국인근로자·실직노숙자를 위한 보현의 집 건설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신도교육·템플스테이 주력

성웅 스님 (김천 직지사 주지)

'올'로 불릴 정도로 수행과 계율을 강조하는 성웅 스님은 수행의 참맛을 느끼며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핵심적인 신도교육에 비중을 두고 있다. 또 사회 복지사업과, 템플스테이도 올해의 중점 사업으로 세워 놓았다. 성웅 스님은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통하여 국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불교계의 인적 자원을 조직화할 생각이다. 그리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양적, 질



적으로 향상시키고 사회적 영향력을 증대시켜 포교효과를 제고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정대상을 위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하고 적극 홍보하여 불교문화를 알리고 올바른 정법홍포에 앞장설 계획이다. 기존 사업들을 보다 내실있게 이끌면서 그 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스님은 신중어려운 스님을 위시해 분발사간의 화합과 신뢰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학생·청년 불자들의 '대부'

정우 스님 (금강사 주지·구미사암주지연합회장)

정우 스님은 79년 금강사 주지를 맡은 후 구미불교청년회와 81년 구미반야학생회 창립을 이끌고 85년 구미사암연합회 결성을 주도한 구미불교의 구심점이다. 스님은 81년 청년회와 학생회를 주축으로 장엄물과 등을 만들어 무조건 초파일 제등행진을 시작했던 장본인이기도하다. 88년에는 유치원을 개원해 어린이포교에도 앞장서고 있다. 금강사는 지금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3년 전부터 준비해온 유치원 불교문화회관이 준공됐기 때문이다. 총 5층 연면적 570평 규모의 불교문화회관은 12층은 유치원으로 2,3층은 도심 속 일반 대중이 다도, 예절, 서예, 음악 등을 배우는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강원 '맥' 이으며 환경불사

지형 스님 (김천 청암사 강원 강주)

청암사 학장 지형 스님은 현 주지 상덕 스님과 1987년 청암사에 들어와 비구니 강원을 설립하면서 70년대 이후 끊어졌던 강원 맥을 잇고, 진영각과 육화료, 중현당, 선열당, 교육관 등 19여 동의 전각과 당우들을 하나하나 보수 건축하면서 오늘날 130평의 대웅이 경하에 정진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 비구니 강원으로 만들었다. 불사에 있어서 항상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스님은 규모를 최소화하면서 청정지역을 그대로 보존하는 사찰의 면모를 갖추도록 노력했으며, 매주 어린이, 중학교, 김천 소년교도소 포교를 20여 년간 이어오면서 지역포교에도 일익을 담당해 왔다.

공동체 마을 설립 발원

명효 스님 (구미 죽장사 주지)

명효 스님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선산 죽장동 5층 석탑(국보 130호)이 너무 초라하게 방치돼 있는 것이 안타까워 오직 부처님 전을 짓겠다는 원력 하나로 88년 죽장사에 들어왔다. 두두물물(頭頭物物) 부처님 아님이 없다는 믿음을 하나로 기도를 통해 불사원력을 성취해온 스님은 4년째 여성 심터 연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 스님은 오갈 곳 없는 여성들을 받아 그 마음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게다가 지역 독거노인 2명도 함께 모시고 있다. "인간은 절대 혼자 살 수 없다"는 스님은 "꽃과 나무가 어울려서 자연 환경 속에서 노닐고, 아이, 젊은이가 모여 사는 것처럼 떠들썩하게 살아가는 공동체 마을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지역화합 도모 앞장

성현 스님 (김천 고방사 주지·김천사암주지연합회장)

"할매요, 항상 건강하시소" 성현 스님의 구수한 사투리는 김천 농소면, 남면, 감천면, 조마면 등 4개 면의 시골 어르신들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 넣는다. 9년째 고방사에서 주지 소임을 맡고 있는 성현 스님은 사암연합회장을 맡은 6년 동안 김천지역 각 사암들의 화합 도모에 앞장서고 있다. "모든 사암 스님들이 화합하여 매사에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는 스님은 직지사 회주 녹원스



님의 포교에 대한 원력과 관심 또한 잊지 않고 거론했다. 출가수행자의 본분대로 주지 소임을 놓으면 꼭 선방에서 한 철을 나겠다는 스님은 지역 어르신들이 타종교 간병인의 보호를 받으며 개종하는 것이 안타까워다며 연계로 불교 간병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악포교' 한차원 높여

현오 스님 (구미 불로사 주지)

현오 스님은 1998년 어린이 불교합창단인 롬비니합창단을 이끌면서 어린이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교계의 다양한 행사가 어린이합창단 하나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다는 스님은 1998년 직접 단원을 찾아 나선 끝에 10여명의 어린이들로 롬비니합창단을 창단한 것이 지금은 단원이 50여명을 넘고 있다. 또 발표경력도 화려하다. 2000년에는 한국불교 음악협회기념 연주회에 특별출연하면서 세종문화회관에도 갔고, 인진각 리틀엔젤스회관에도 갔다. 또 2003년에는 이태리 순화공연을, 2월 23일부터는 5박6일간 캄보디아 외딴섬 사원에 위문공연을 다녀왔다. 스님은 이제 단원 중 재능이 뛰어난 아이들을 발굴해 본격적으로 불자 예술가 육성에 나섰다.



어린이교육 특성화 몰두

진원 스님 (김천 개운사 주지·녹아유치원 원장)

5명만 모여도 어디서건 법회를 이어간다는 진원 스님은 20여명 남짓한 유치원생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녹아유치원을 5년 만에 김천 최고의 유치원으로 만든 장본인이다. 비가 세고 눈이 떨어지거나 개운사에서 스님이 처음 시작한 일은 도량 청소. 그리고 스님은 개운사를 인식시키기 위해 어린이 한문서당을 개최하고 신도 기본교육을 시행했다.



또 유치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밤낮 선생님들과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몰두했다. 이제 녹아유치원은 지역민의 성화에 못 이겨 제18회 입학식을 맞아 3학급을 더 증축해서 모집했다.

불심교양 위한 테마법회 준비

김홍배 거사 (구미거사법회장)

"불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테마가 있는 법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미불교대학 1기 출신인 김홍배 회장은 포교사로 활동하면서 회원들의 정기법회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1월 축원, 2월 108참회, 3월 신행단체연합회, 4월 타 지역 스님 초청법회 등 월별 테마가 있는 법회를 제안하는가 하면 청천 릴레이, 이말의 거사, 우수 거사 선방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불자라면 풍경에 달린 물고기처럼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김 회장은 지역 신행단체들의 연합회를 모색하면서 지역불교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옛 명성' 되살리기 화두

이병정 거사 (구미불교청년회장)

"예전 구미불교청년회의 명성을 되찾고 싶습니다." 구미불교청년회 이병정 회장은 요즘 과거 화려했던 구미불교청년회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다. 구미불교청년회는 우선 금강사에서 불로사로 활동무대를 옮겨 불로사 청년회를 새롭게 창립했다. 금강사에는 구미반야불교학생회출신 청년 불자들이 금강사지회를 새롭게 창립한다는 복안이다. 구미불교청년회는 불로사 주지 현오 스님의 후원으로 마련된 청년회관을 거점으로 지역민을 위한 문화관을 운영하면서 지부로 발돋움하겠다는 각오가 대단하다.

